

작은 선행이라도 꼭 실천하는 한해 되길

새해에는 인성도야에 힘쓰자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지혜로운 이는 고행을 행함이나 어리석은 이는 고생을 한다 했습니다. (智者苦行 愚者苦生)

고행은 다른 이를 배려하는 이타심의 발로이나 고생은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이기심이라 하였습니다.

은 나라가 단장(斷腸)의 아픔으로 점철되었던 한 해가 가고 올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해에는 화합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이 먼저 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잊고 있습니다. (智不責愚)

오늘날 지구상에는 화합이 그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인류의 희망과 앞날이 여기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대중의 화합을 승가의 으뜸가는 첫째 덕목으로 삼으셨으니, 화합에는 인욕이 제일도입니다.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인성도야에 힘쓰십시오. 우리는 내일보다 내일이 먼저 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잊고 있습니다. 삼독과 오욕에 가로막혀 그림자 같고 꼭두각시 같은 일에 골몰하여 허송할 수 없습니다. 동서고금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은 시비를 떠난 중도의 인성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성도야를 이루겠습니까. 나라는 헛된 망상을 뿌리 채 뽑아 없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가?” 하고 이 화두를 들고 간절히 의심해 가는 것입니다.

간절한 화두의심 한 생각으로 온갖 분별망상이 다 재(灰)가 되어 참나를 깨닫고 나면, 만유가 나와 더불어 한 몸임을 깨닫게 되어 모든 시비와 갈등, 욕심들이 사라지고 영원한 자유와 행복, 사랑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새해에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십시오. 모든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신 계는 ‘악행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행하지 말 것이며, 선행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반드시 실천하라’ (諸惡莫作 衆善奉行)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우리는 멀고 가까운 곳을 떠나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이웃의 고난과 비애를 들어주고 고통을 대신하여 애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구촌의 모든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보살피는 동사십을 행하도록 합시다.

한결같은 바람으로 올해에도 한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을 염원합시다.

특히 올해에는 국가와 불교계가 다같이 합심하여 ‘세계평화대회 및 세계고승무차선대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본래부터 형제자매였던 우리의 염원이 꽃을 피운다면 더 없이 좋은 시절 인연이 성큼 도래하여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세계 속의 으뜸가는 일등선도국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새해를 맞아 온 인류에게 진리의 한 마디를 선사하고자 하니, 잘 받아 가지셔서 값진 올미년 한 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眞金若不經爐冶
爭得光華徹底鮮

진금이 화료를 지나지 않으면
어찌 빛이 나고 철저히 고우리오.

신뢰와 상승의 세상을 열자

성초 정사

진각종 총인



대일광명이 올미년의 새날을 열고 있습니다.

법계의 중생들이 소담한 희망을 품고서 평화롭고 안락하게 또 한해를 살아가도록 마음이 맑은 사람들의 원력을 담아서 지극한 마음으로 서원합니다.

사바 세상에 심인진리의 심의를 열고 육자진언의 묘리로서 참회문을 배풀었으니 아상을 돌려서 공도를 앞세우고 자만에서 벗어나 은혜를 깨달으며 진각의 만다라 정토를 세워갑시다.

여야는 정리를 세워 화평하고 노사가 상생을 위해 화해하면 계층의 갈등이 공존의 계기로 상승하고 공영의 신뢰가 너와 나의 마음을 이어서 저마다 본분사를 다하는 나라가 열립니다.

부유가 행복을 누릴 특권일 수 없고 가난이 사회를 원망할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빈부와 갑을이 서로 부조하여 예경하면 물질의 풍요와 문화의 혜택을 함께 나누고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복지사회가 펼쳐집니다.

사욕을 다스려야 지도자가 되고 사심을 이겨야 인격이 형성됩니다. 공심의 심지가 굳게 자리 잡고 반목의 파열음이 화음으로 승화하는 새해의 서광이 가득한 세상을 위해 정진합시다.

원융회통의 새아침을 함께 열어가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올미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온순한 청양(靑羊)의 해입니다. 양은 이해심이 뛰어나고 화합을 잘하기 때문에 무리지어 살아도 다툼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삶이 청양처럼 늘 조화롭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새해는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0년 동안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딛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모두 세계가 놀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강렬한 빛만큼이나 어둠의 그늘도 짙게 드리워 있습니다.

경제 대국에 걸맞는 제도와 문화, 그리고 이를 엮어내는 우리의 마음들은 아직 부족하기만 합니다. 남과 북은 대결과 갈등이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정전 60주년을 지나오며 평화의 전환점을 기대했으나, 긴장 해소는 아직 큰 걸음을 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불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가 70년 전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을 때 어떤 나라를 꿈꾸었을까요? 민족은 철조망 사이에 두고 갈리어 서로를 겨누어 감시하고, 사회는 이념 계층, 종교, 지역, 세대가 편을 갈라 다투고 맞서는 나라를 꿈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 뒷사람 앞사람이 서로 화목하여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를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 하셨습니다. 누구의 침략도 받지 않는 강성한 국가라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신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비추어도 율령이 큰 가르침입니다.

사회 가장자리부터 나눔의 충만함을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불자 여러분, 올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급변 한 해도 푸르고 진취적인 기상으로 국운이 융창하고 나라가 부강하며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종단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보다 멀리 그리고 높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계와 우리 종단도 과거 청산을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자성과 쇄신의 목소리를 높여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았습니다.

반성과 참회 없는 내일의 희망을 열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성심이 중요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올미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무량겁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를 밝게 비추니 만생의 기쁨이요 일체중생의 희망입니다.

올미년 새해는 온순한 양의 성품처럼 일체의 다툼이 사라지고 사고와 팔난이 소멸되어 온 인류가 보다 더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새해에는 공경과 나눔으로 안으로 평온하고 밖으로 조화로운 한 해를 만들어 갑시다. 남을 공경하면 내가 귀해지고, 내 것을 나누면 남이 나를 돕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로는 숲을 이루지 못

진각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

희망의 올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모든 불자들이 늘 복되고 건강하시어 서원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고, 새해의 상서로운 기운으로 국가와 민족이 평화롭고 안녕하길 서원합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서 아직도 고통 속에 헤매는 이웃들이 하루 빨리 평화로운 삶을 되찾길 바라며,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보살의 마음으로 선근을 쌓는 복된 한해가 되길 간절히 서원합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히 굳어지듯이 올 한해는 희망차고 밝은 새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의 현실은 빠른 속도와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변화와 발전은 한 사람의 몫이 아닌 우리 모두의 협력과 상생에서 성취되리라 봅니다.

가시적 실적에만 비교함이 없이 위선이 아닌 진실과 진리에 승응하는, 마치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한국 불교를 일구고, 선입견과 독선의 자기중심 생각을 대승적 화합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풀기 위해, 먼저 대화하고 타협하는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방 70주년을 맞아 더 이상의 편견과 배제를 떠나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나아가길 함께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랜 적대관계였던 미국과 쿠바가 국교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현연히 손을 맞잡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가 어느 때보다 심상치 않은 지금 한 민족인 남과 북이 공존과 상생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마다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민족의 슬기로 국제정세의 거센 파도를 헤쳐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민족의 길일 것입니다.

우리 종단에서도 새해에는 서로 다른 주장과, 서로 다른 해결 방법을 공론의 장을 열어 놓고,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점을 함께 찾아가는 원융회통(圓融會通)의 아름다운 전통을 새롭게 펼쳐가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지만, 서로의 뜻이 모이면 문수의 지혜가 나온다는 말씀을 의지해서 사부대중 여러분을 믿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살시다. 고맙습니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살시다. 고맙습니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살시다. 고맙습니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살시다. 고맙습니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살시다. 고맙습니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살시다. 고맙습니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살시다. 고맙습니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살시다. 고맙습니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살시다. 고맙습니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살시다. 고맙습니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살시다. 고맙습니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살시다. 고맙습니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살시다. 고맙습니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살시다. 고맙습니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살시다. 고맙습니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살시다. 고맙습니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살시다. 고맙습니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살시다. 고맙습니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살시다. 고맙습니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살시다. 고맙습니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살시다. 고맙습니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살시다. 고맙습니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살시다. 고맙습니다.

행복의 웃음꽃 가득하길

해초 스님

태고종 종정



올미 새해를 맞이하여 온 국민의 가정마다 행복의 웃음꽃 가득하고, 무궁화동산에는 희망의 꽃 만발하여라.

지나간 세월의 부조화에 미련두지 말고,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 말며, 불자라면 간절한 마음으로 ‘참나, 이 무엇인가?’ 하는 의단명여리를 한 호흡 한 호흡에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현 시대상은 난세지말(亂世之末)의 세정(世情)으로 법약마성(法弱魔盛) 하고, 시류(時流)는 무절제하여 급변의 소용돌이에서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불자들은 도심을 잃지 말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다는 말과 같이 모두들 큰 희망의 등불을 향해서, 열반의 순간까지 목욕물 내어놓아야 합니다.

휴탕물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보배처럼 빛나듯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탈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수행자는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 어느 순간에도 헛된 마구니의 장난에 끌리지 말고 끊임없이 정진해야 합니다.

사부대중은 지난해 못다 한 국가 발전과 도약의 기반을 올미년(乙未新年)에는 새로운 각오와 자기희생으로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반드시 달성시키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다하여 정진합시다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懶?恒常見大苦하니
精進處處得稱心하리라
是故勤勞勇猛意하면
智人以此成菩提하리라

흘러간 세월은
인연 속에 묻어 두고
내 앞을 흐르는
도도한 강물을 바라보라.

허망한 망상 벗어나 한 걸 같은 정성으로
생명을 다하여 이 한 순간을 살아보라.

어디서나 부지런하면 만족을 얻게 되고
계몽은 언제나 고통만을 가져올 뿐
용맹한 마음 일으키어 부지런히 나아가라.
지혜로운 이는 이렇게 깨달음을 이루리라.

양의 화합과 융화력 본받아야

효강 정사

총지종 종령



올미년 양띠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의 가정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서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안녕과 행복뿐만아 나라 나라와 더 나아가 전세계가 경제 위기, 종교갈등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이 시대에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희망하며, 온 지구촌이 빈곤과 가난,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 모두가 해탈하는 한해가 되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올해는 올미년 양의 해입니다. 양은 성격이 착하고 유순하며 무리를 지어 살면서 서로 화합하고 평화롭게 사는 동물입니다. 또한 무리를 지어 살기에 융화력과 사회성이 뛰어나며 공동체 내에서 잘 융합합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국론은 분열되어 여당과 야당,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서로가 서로를 힐난하고 있는 지금 국가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양의 화합과 융화력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도와주며 바른 지혜로서 이 사회를 잘해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올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 원력으로 불자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변함없이 건강하시어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비로자나부처님께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훤. 옴마니반메훤. 옴마니반메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살시다. 고맙습니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살시다. 고맙습니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살시다. 고맙습니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살시다. 고맙습니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살시다. 고맙습니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살시다. 고맙습니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살시다. 고맙습니다.

불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새해의 맑고 밝은 기운이 아침햇살처럼 온 나라, 온 국민, 사부대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청양처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화합시다. 함께 살시다. 고맙습니다.